

# 교육훈련 보고서

(2012. 1. 3 ~ 2012. 12. 30)

1. 보고서 1부
2. 잘된 도시디자인 - 출판물

2013. 1



이 총 훈/문화·디자인연구부/선임연구위원

# 차 례

## I. 해외 역사문화도시 답사

주관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일본 가나자와
- 이탈리아

## II. 공공디자인 연구 참여

주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디자인지원

## III. 공주고도육성포럼(경관디자인 교육)

주관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I. 경관디자인

## 1. 일본의 경관디자인

### 1) 가나자와(金澤)

#### (1) 가나자와시 현황

- 가나자와시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중간 지점인 호쿠리쿠(北陸)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약 45만의 인구를 가진 정치·문화·경제의 중심지로서 해안도시이다. 가나자와는 사찰마을이나, 성(城)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일본의 중세도시로 분류된다.

#### (2) 가나자와시 경관정책

- 가나자와시의 경관정비는 단순히 관광객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의 생활향상, 환경미화, 문화예술, 기회창출 등 정주환경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을 받지 않아 전통도시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의 유출이 매우 적고, 공간구조의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지키기 위해 일본 최초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활성화된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 경관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건축물과 현대적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보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옛마을 풍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 가나자와시의 도시경관관리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정책의 추진과  
둘째,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합리적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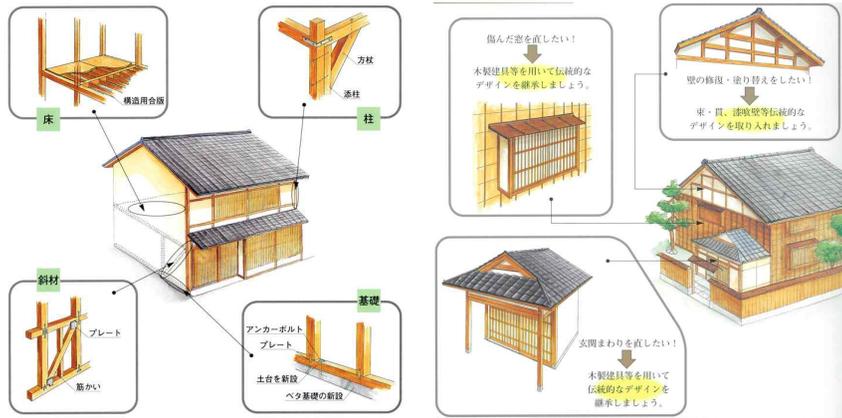
(그림1-1) 가나자와 경관 구조

- 역사문화경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68년 전통환경보존조례, 1974년 문화재보호조례, 1977년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조례, 1989년 : 전통환경보존 및 아름다운경관 형성에 관한 조례, 1994년 : 코마치나미 보존조례, 1997년 : 사면녹지보존조례, 2002년 : 조망경관보존조례, 사찰풍경보존조례, 2005년 야간경관보존조례, 가로경관보존조례, 옥외광고물 조례
-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제정목적 - 아름다운 경관 유지  
매주 1회 광고물 심의회를 개최하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심의회에서 개선을 유도시키고 있다.
- 녹색지역의 경관에서는 건축물의 색도 동일하게 유도하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색채를 가나자와 지역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며, 강제성은 없으나 주민의 9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야간경관지역에서 상업지역은 밝게, 그 외 지역은 어둡게 조절하도록 한다.  
마찌즈구리 협정 - 마을가꾸기
- 바닷가와 시내도심의 사인형태는 구분하여 설치된다.
-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형성사업은 고속도로 주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며, 시에서는 청소도구 및 음료수, 타올 등을 지원한다.
- 가나자와 주변환경의 조화를 위한 도로표식 개선 - 도로주변환경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안내표식 개선, 문자축소, 안전성 검토, 안내사인의 크기를 축소한다.
- 가나자와 마을 가꾸기 중심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설계자(연출가) - 시민(주역) - 사업가(기업, 지역단체, NGO) - 시(행정, 조정자

역할)가 협력을 통해 활동한다.

### (3) 건물개선 디자인 제시

-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물디자인 개선방안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1-2) 건축물 복원 매뉴얼

### (4) 색채기준

- 원색(R, Y, YR), 형광색 등 금지색 지정, Y계열에서 채도가 4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원색(R, Y, YR)이외의 색은 채도 2를 초과하지 못한다. 상표의 원색 면적이 넓은 경우 건물의 20% 이상 면적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전통건조물이나 자연소재에는 착색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조건조물이 많아 나무색(소재색)을 권장한다.
- 금지색으로는 노랑, 보라, 적색계통의 색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5) 경관서포트 제도

- 가나자와시는 시민과의 경관학습, 경관교육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이뤄나가고 있다.
-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진을 촬영하여 개선효과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방법을 모

색한다.

(5) 가나자와 지역 활성화사업과 공공디자인 전개

세계도시 구상과 도심 르네상스 계획

-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가나자와는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폭격이나 피해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지만, 쇠락한 시골마을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하였다.
  -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중심지의 상업화를 비롯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교외이전, 대형할인점의 진출, 자동차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은 지금까지 중심시가지가 길러온 다양한 도시기능의 저하를 가져왔다.
  -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나자와 시는 1995년 ‘가나자와 세계 도시 구상’을 계획하고, ‘도심 르네상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가나자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최우선 중요시책으로 지정하였다.
  - 이는 대규모 도심의 급속한 성장보다,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심시가지의 활력과 매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 제1차 기본계획 (1998년~2003년)
    - 테마 : 발전과 전통이 조화된 활력 있는 중심시가지의 형성
    - 기본방침 : 역사, 문화, 자연을 활용하여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걷는 마을’만들기와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 환경 형성
    - 도시기반 정비 추진에 의한 활기 창출
  - 제2차 기본계획 (2004년~2008년)
    - 테마 : 마을안의 주거와 교류의 촉진
      -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 생활의 즐거움을 실감하는 정착 추진
      - 건강한 상점가, 도심 비즈니스의 형성
      - 마을 안의 교류활동
  - 가나자와는 지역몰격을 유지하는 가나자와성과 켄로쿠엔,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수로와 조망을 배려한 도로 등 역사적인 도시구조를 비롯한 중심시가지에 많이 남겨져 있는 문화적 유형 자산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능, 전통공예 산업기술로 이어지는 무형자산 등 가나자와의 전통문화가 새롭고, 현대적인 것과의 조화를 이루고, 활기차게 사람이 살고, 모이고, 어울리는 도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가나자와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활기와 교

류가 넘치는 중심시가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림1-3) 겐로쿠엔 정원



(그림1-4) 유노쿠니노모리(전통공예촌)

#### (6) 경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 전통 환경보존지구 정비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 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전통환경보존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조망경관보존구역 내 고층건축물 제한 등 각종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설계자가 직접 경관 진단서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어 공간변경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가나자와 시는 혜택 받은 자연과 지형을 배경으로 중심시가지의 약 절반 이상을 ‘전통 환경보존지역’ 및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아름다운 지역만들기를 가로경관 측면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정비를 진행하였다.
- 2006년 3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정비 지구를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이후, 경관과 교통의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나자와만의 도로표식 간판설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통 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전통환경 보존 지구로 정하고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에 필요한 각 지역의 건축물 및 조형물의 규모, 위치, 색채, 의장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의 개성 풍부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고마치나미의 ‘고’는 ‘역사적 경관과 정서를 지닌 가로’를 뜻하는 ‘古’와 ‘작다’는 의미의 ‘小’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서, ‘고마치나미’(小町並み)라는 이름의 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사무라이 가옥, 옛 가옥, 사원 등 건축물이나 유사 양식을 계승한 건축물이 모여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골목은 물론, 생활과 경제활동의 장소로서 가나자와만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목을 선정해 경관을 정비했다.
- 고마치나미 사업은 ①보존이 필요한 가로를 ‘고마치나미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② 지역 특성에 맞는 ‘보전 기준’을 정하고, ③보전구역에서는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④ 시가 개축과 수리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구역 내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고마치나미 보전건조물’로 등록하고, 시와 소유주가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구역 지정과 보전 기준은 주민과 전문가(대부분 가나자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마치나미 보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가나자와를 만들기 위한 성숙한 주민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 골목에 문화의 손길이 닿아 골목이 다시 활기를 띠고, 진정한 의미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고마치나미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다. 히가시차야 도오리는 이제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이미지 공간이다. 이 거리는 가나자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일본 전통차, 가가유젠(加賀友禪, 일본 전통의상 염색법), 금박(金箔), 구타니 자기(九谷焼) 등 지역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되었다.
- 이 과정에서 건축·조경·마케팅 전문가가 투입되어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와 재질, 외벽의색채와 재질, 외벽의 위치, 식재(植栽)와 문이나 울타리 등의 조성, 외부로 드러나는 설비기기 지침, 옥외 광고물과 차양 등의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 선정과 인테리어,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 간판·안내판·안내지도 등의 공공 사인디자인 등의 경관을 정비해 전체 경관의 조화를 추구하고, ‘걸으면서 문화를 느끼는’ 골목을 만들었다.



(그림1-5)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

### (7) 지역 보행 공간 정비사업

- 지역 내 벤치나 화장실, 식재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기 쉬운 보행환경 정비 추진사업으로 가나자와 내에서 보행자 우선, 공용교통 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지역 특유의 역사유산이나 상점가를 즐기며, 둘러볼 수 있도록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비에도 모두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가나자와 무사 가옥 주변의 공중전화 박스와 공중화장실은 옛 무사가옥의 구조와 재료를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1-6) 공간, 시설물(인도, 불라드)

### (8) 아트퍼니처 설치

- 가나자와 시의 아트퍼니처 설치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가나자와의 특성을 살리려는 시의 정책으로 가나자와 역에서 21세기미술관을 잇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예술성이 넘치는 조각 작품 및 공예작품을 설치하였다. 이를 위해 가나자와 시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공모한 뛰어난 조각작품을 설치하고, 기업의 쇼윈도우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가로경관의 매력을 높여 지역 전체에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9) 가나자와 시냇물 정비사업

- 가나자와시 대로상의 정비에 따라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도심 축 보행공간의 정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물, 녹음 등 자연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창출하였다. 특히 예부터 내려오는 가나자와시의 전통 수로를 적극 끌어들이어 시냇물이 흐르는 도심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더욱 높였다.



(그림1-7) 가나자와 수로

(10)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조밀한 구성

- 지역의 공공디자인 개발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원을 순환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조밀한 구성은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물, 바람, 녹음 등 풍부한 자연과 이들 요소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유지되어 이러한 지역 환경 속에서 질 높고 풍부한 거주공간과 쾌적함이 나온다.

- 가나자와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중심의 도로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 통행의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도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활발한 지역 교류활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공간에서 보행자 중심의 보행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공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다.
- 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소재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가나자와시는 전통 환경 보존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가로 시설물에는 가나자와 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그림1-8) 가나자와 가로시설물 디자인

- 가나자와 시는 특히 중심시가지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및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새로운 창작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시민 교류 활동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역교류 활동사업으로는 마에다 자료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문예관, 가나자와 노카쿠 미술관 등 교류 활동 시설을 개설하고 이들 문화 시설에 있어 합동 기획전 전개 및 공동입장권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의 회유성 유도 및 시민 참여활동을 유도한다.
- 시가 앞에서 끌고 시민이 뒤에서 미는 전통 문화 보존 정책과 시민들의 3분의 1을 아마추어 예술가로 만들 만큼 잘 갖춰진 문화적 인프라는 '문화 도시' 가나자와 시를

만드는 밑거름이다.



(그림1-9)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가나자와 시를 진정한 문화 도시로 만든 것은 시민예술촌이다. 시는 방직공장이 폐쇄되면서 남은 9만7000㎡에 이르는 광대한 부지를 사들여 지난 1996년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개방했다. 설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들어찼던 공장은 문화공연을 위한 연습실로 탈바꿈했고, 주차장은 미술 작품공간과 공원으로 변신했다.
- 예술촌은 시민들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개방한다. 사용료도 6시간에 1000엔에 불과하다. 직원은 밤 9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1-10)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11) 시사점

- 지역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의 다양한 관계 주체와의 합의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함께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걷는 마을’ 만들기과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환경을 형성하는 창조도시를 조성하였다.
- 자연의 요소를 공공디자인에 활용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높였으며, 가로 시설물에 지역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 가로공간의 기능성·시각성·기호성·무대성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생활을 반영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인프라 정비, 환경미화 차원에서 아름다운 골목을 수동적으로 향유하기보다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감과 감동을 주고, 그것이 생활향상, 문화예술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교토시

### 1) 경관정책

- 고도보존법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과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는 고도의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는 풍토특별보존지구를 1930년에 지정.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는 시가지 경관조례에 의거 특별수경보존지구를 참고하여, 1975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제도화.
  - 1930년 - 풍치지구의 지정,
  - 1966년 - 고도보존법 제정,
  - 1967년 - 고도보존법에 의한 역사적 풍토특별보존지구 지정(117ha에서 현재 2,861ha)
  - 1972년 - 시가지 경관조례 제정 - 미관지구, 거대공작물 규제구역, 특별보존수경지구(기온신바시지구, 안네이자카지구), 쇼와5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전통적 조물군 보존지구 제도 창설)
  - 1973년 - 시가지 대부분 고도지구(중심부 높이 45m 제한)
  - 1995년 - 시가지 경관정비조례 제정
  - 1996년 - 경관규제구역 확대, 옥외광고물 대책의 강화, 높이 규제 강화
  - 2003년 - 직주공존지구의 3점세트 룰의 도입  
(도심부의 고도지구 강화, 특별용도지구 지정, 미관지구 확대)
- 경관 중요 건조물의 지정 (단체정비-역사적 경관재생사업)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교토다운 정취가 있는 경관을 보전재생하기 위해 경관 중요건조물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경관상 중요건축물의 외관수리시 지원

## 2) 경관정책 기본 컨셉

- 교토시는 5개의 기본방침아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유도방안을 검토하여 2007년 9월부터 새로운 경관정책을 실시
  - ① 교토의 바람직한 경관형성 50년, 100년 후의 교토 장래를 내다본 역사도시, 교토의 경관 만들기 건물 등은 사유 재산이라도 경관은 공공재산 교토의 훌륭한 경관을 지키고 미래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라는 의식
  - ② 5대 기본방침
    - 분지경을 기본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경관형성
    -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창조와 조화를 기본으로 한 경관형성
    - 교토다움을 살린 개성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경관형성
    -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경관형성
    - 행정, 시민, 사업자 등의 파트너십에 의한 경관형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경관정책 추진

## 3) 교토시의 경관정책의 구성

- 경관정책은 5개의 요인과 지원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토시에서는 이 경관정책을 위하여 2007년에 도시계획과 시의 법률을 변경
  - 법률 제정 - 조망경관 창생조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특례허가의 수속을 정한 조례
  - 법률 개정 - 시가지 경관정비조례, 풍치지구조례, 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자연풍경조례 교토시의 신경관정책 5개 요인과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 ① 건물의 높이
  - 건물의 높이는 도시경관과 시가지의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높이제한을 이전 보다 낮추고, 동시에 높이제한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
  - 역사적인 시가지, 산기슭 주택지, 공업지역 등으로 고도지구에 의한 높이의 최고 제한을 낮춤
  - 도시전체의 높이 구성은 상업 업무의 중심지구인 도심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의 높이를 인정하고, 이 도심부에서 세 방향의 산기슭으로 감에 따라 점차로 높이의 최고 한도를 낮추는 것을 기본

(도심간선도로변지구 : 45m - 31m)



(업무,주거공존지구 : 31m - 15m)



## ② 건물 등의 디자인

- 건물 등의 디자인(형태, 재료, 색채 등)은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이를 위해 규제지구를 이전보다 넓게 지정하고, 동시에 디자인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정함
  - 경관지구의 확대 : 미관지구의 확대, 미관 형성지구의 신규지정
  - 건조물 수경지구의 확대
  - 풍치지구의 확대 : 세계문화유산주변 등으로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 기준의 상세화, 명확화 : 종별 기준에서 지구별 기준으로, 색채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
  - 공작물 규제의 강화 : 휴대폰 안테나, 태양광 발전장치  
미관지구, 미관형성지구의 디자인 기준
- 지붕의 색채 : 기와는 원칙적으로 그을린 은색/동판은 소재색 또는 녹청색/동판이외의 금속판 및 기타 지붕재료는 원칙적으로 광택이 없는 짙은 회색, 광택이 없는 검정
  - 외벽의 소재 : 주요한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광택이 없는 것으로 할 것(유리 및 자연 소재는 제외)
  - 발코니 :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벽에서 튀어나오지 않을 것, 단 낮은 건축물 또는 공공의 공터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음
  - 외벽의 색채 : 주요한 외벽에는 다음의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착색을 하지 않은 자연소재는 제외로 한다. 적색계열의 색상으로 채도가 6을 넘는 것, 황적색 계열의 색상으로 채도가 6을 넘는 것
  - 문, 담, 울타리 : 자주색 주차장이나 주류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 담, 혹은 울타

리 등을 설치하여 거리의 연속성을 배려.



연도형 미관지구



구시가지형 미관지구



역사유산형 미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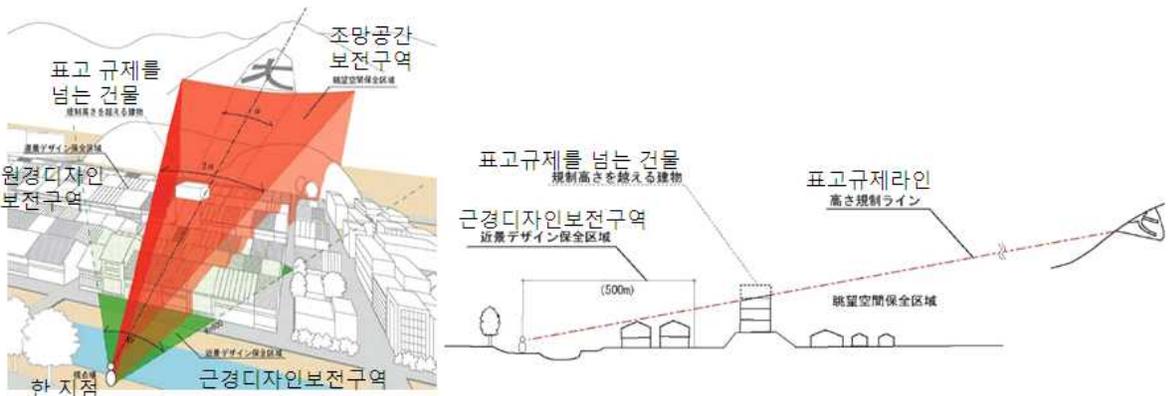
연도형 미관형성지구

### ③ 조망경관과 차경(借景)

- 2007년도 전국에서 최초로 “조망경관 창생조례”를 제정하여 38군데의 조망경관과 차경의 보전을 꾀함.
-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역사적 자산주변과 시가지가 가까워 건축물 등의 높이와 디자인

인에 대하여 새롭게 규제하지 않으면 조망경관과 차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38군데를 심의회에서 추출.

- 조망경관창생조례 : 건축물 등의 표고규제와 디자인 규제, 제안제도
- 조망경관을 보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조망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 조망경관보전지역은 각각 필요한 규제 내용에 따라 다음의 3구역으로 구분.
  - 조망공간보전구역 : 한 시점으로 부터 시대상(視對象)으로의 조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 등의 최고부가 넘어서면 안되는 표고를 정하는 구역
  - 근경디자인보전구역 : 한 시점으로부터 보이는 건축물 등이 훌륭한 조망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태, 의장, 색채에 대하여 규제하는 구역
  - 원경디자인보전구역 : 한 시점으로부터 보이는 건축물 등이 훌륭한 조망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외벽, 지붕 등의 색채에 대하여 규제하는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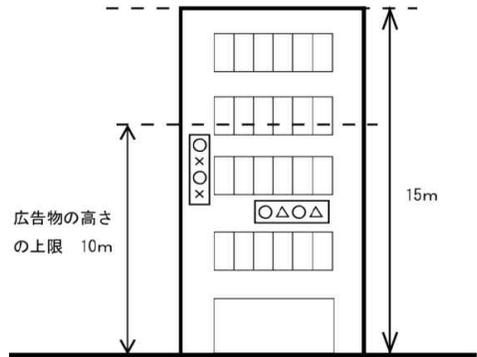


#### ④ 옥외광고물

- 도시경관은 자연과 건물뿐만이 아니라 온갖 도시 활동에 의해 형성. 교토시에서는 시내전역의 옥외광고물을 규제함으로써 품격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규제 : 옥외광고물의 표시위치, 크기, 색채 등을 규제  
 옥상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을 시 전체에 금지  
 점멸조명의 옥외광고물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  
 옥외광고물의 표시위치, 크기, 색채 등의 규제 강화

도심부의 간선도로변 등의 도로상공에 돌출된 간판 금지

- 우수한 옥외광고물의 유도 : 허가기간의 연장, 허가기준의 완화, 우수한 옥외광고물 조성
- 위반 광고물 대책의 추진
- 옥외광고물 규제



양호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창출을 위해 옥상간판을 금지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높이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건물의 2/3이하 중 더 낮은 쪽으로 함

⑤ 역사적인 거리

- 교토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생활문화를 전하는 교마찌야는 역사도시, 교토의 경관기반을 구성한다. 그 보전과 외관의 수리(修理), 수경(修景)에 대한 조성을 실시하고 있음.
- 지구지정제도의 활용 : 역사적인 거리가 남아있는 지구를 지정하여 지구내 건물을 보전함과 더불어 수리, 수경에 대하여 조성을 하고 있음.
- 건물 단독체로서의 보전책 :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경관법)
  - 건물을 경관중요건조물 등으로 지정하여 외관의 변경을 허가제로 함과 동시에 수리, 수경에 대하여 조성하고 있음.
  - 역사적 의장건조물의 지정(시가지경관정비조례)
  - 경관중요건조물을 지역의 핵으로 하여 “점”에서 “선”, “선”에서 “면”으로 역사적 경관을 재생
- 교마찌야 거리만들기 펀드 개수조성모델사업

- 교마찌야 거리만들기 펀드는 교토시와 국가의 지원, 시민으로 부터의 기부에 의해 창설된 교마찌야를 보전, 재생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교마찌야의 개수(改修)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음.

#### 4) 지원정책

- 경관 중요 건조물의 지정 (단체정비-역사적 경관재생사업)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교토다운 정취가 있는 경관을 보전재생하기 위해 경관 중요건조물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경관상 중요건축물의 외관수리시 이를 지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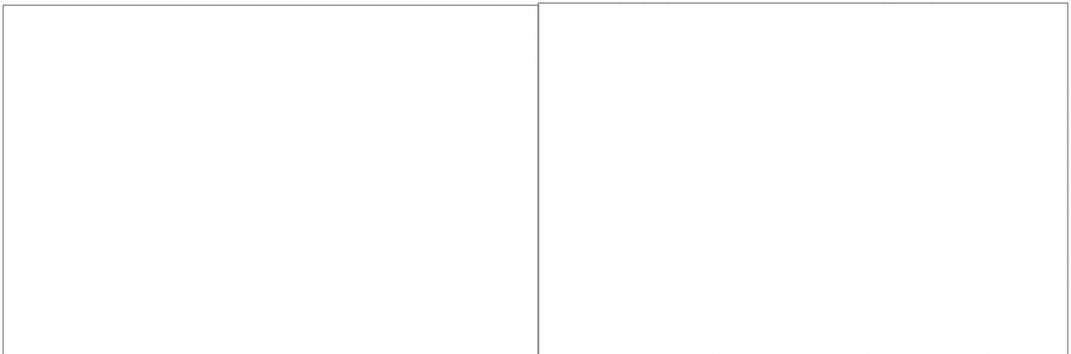
##### (1) 전통건조물 보존지역 답사내용

- 전통건조물 보존지역의 하천을 정비하고,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여
- 역사지구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통해 도시를 창조하고 있음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Walking around town" 활용으로서, 이 슬로건은 문유 회랑(文遊回廊)을 만들어 도시민이 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교토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유회랑(文遊回廊)이란 교토의 "기온지구와 산넨자카, 니넨자카 등 전통거리 역사적 장소와 범룡사 5층목탑, 금각사의 불교 유적 등을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는 "문화 복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확대되어 교토시를 둘러싼 산과 호수를 연계한 친환경 관광으로 연결된다.



(그림1-11) 교토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내 하천



(그림1-12) 기온지구, 산넨자카지구

## (2) 시사점

- 공주의 공산성과 무령왕릉, 고마나루, 연미산 등 역사 문화유적을 회랑방식으로 연결하고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공산성~무령왕릉 주변의 거리를 전통가옥을 조성하고, 기념품 및 토산품, 먹거리 상가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나라

#### (1) 나라시 경관보존정책

- 형성배경은 1990년 나라시 도시경관조례 제정을 시점으로 주민과 협의를 시작하였다.
- 1994년 나라마찌 도시경관형성지구로 지정하고 경제적 보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2) 나라마찌 보존지구 답사내용

- 나라마찌는 평성경 바깥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나라시 경관형성사업이 1992년에 시작되었다.
- 현재 나라마찌에는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 상가 모습이 남아 있고 1990년 4월 나라마찌도시경관형성지구로 지정을 받았다.
- 전통역사거리인 나라마찌는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한 규제와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보존·개발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행정기관 및 번문가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닌 지역주민들 자체에서 조성한 '나라지역사회연구회'에서 발의하여 추진된 정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평성경 복원 모형 및 평성천도 1300년 축제캐릭터



나라마찌 전통가옥

(3) 기시하라 이마이쵸 (전통건조물보존지구)답사

- 이마이쵸는 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부 가옥의 70%이상이 에도시대(17C~19C)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에도시대부터 현재까지 큰 화재를 입지 않아 이마이쵸 거리는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고대 일본의 가옥이나 주거생활을 엿 볼 수 있다. 대대로 계승되어 온 상가(주조업, 금속고예, 목재상등)가 있고, 이마이마치나미 자료관에서는 복원된 에도시대의 마치아에 앉아 당시의 생활을 그려볼 수 있다.
-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는 현재에도 지속적인 보존작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오래된 가옥이나 대대로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가옥의 경우 이를 관광상품(가옥관람, 제조품 판매)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1-15) 이마이쵸 전통건축물보존지구

#### (4) 시사점

-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경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마치 보존을 위한 조례 및 관련 정책 지원을 추진했으며 지역민들의 발의에 의해 추진되었으므로 정책의 실행 또한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 공주시는 백제시대 건축물과 조선시대의 전통건축물을 조화롭게 조성하고, 전통역사거리를 재현하여 지역 활성화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도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문객 증가 및 지역인재 흡수, 지역 고유의 산업, 관광산업, 지식산업 등의 투자로 이어지며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

## 4) 다카야마

### (1) 다카야마시 현황

- 다카야마는 기후현[岐阜縣]에 속해 있으며, 일본열도의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9만 7000명의 소도시다. 에도시대에 지어진 격자창의 가옥들과 전통적 산촌풍습이 고풍스럽게 남아있어 '작은 교토'라고 불린다.
- 메이지[明治]유신 (1868) 이후 여러가지 변천을 거쳐 1936년에 다카야마시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행정구역들과 통합된 후 2005년에 주변 9개 구역과 통합, 도쿄도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큰 도시가 되었다.
- 최근에는 “살기 좋은 도시는 방문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적 거리의 보존과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장벽 없는 도시를 조성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책자, 인터넷 정보, 안내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 다카야마시의 도시디자인 정책

### 베리어프리디자인

- 다카야마시는 '살기 편한 도시는 놀러가기 편한 도시'라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장벽없는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되도록 장벽 제거를 위한 시책에 주력하고 있다.

다카야마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 및 정보에서의 장벽 제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장벽 없는 도로 만들기

-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차도와 인도간 턱이 5cm이상인 곳을 2cm이하로 낮추거나 없앴으며, 네거리 등에서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했다.
- 빗물뚝개 창살은 휠체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1cm이하로 촘촘하게 좁힘으로서 안전성을 높였다.



인도와 차도의 턱 제거

### 휠체어 대응 화장실 설치

- 시가지에는 깨끗하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40 개이상 설치되었으며,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도 휠체어 대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배설기를 단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9개를 설치하였다.

#### 관광지 도로표시

- 시내 도로 주요위치에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 간체) 등 4개국어로 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안내표지 및 여행자를 위한 벤치

#### 길거리의 벤치

시가지 중심부에는 많은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 이동수단 지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승하차 보조기구를 구비하거나 휠체어에 대응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3)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 다카야마는 오래된 마을의 모습이라는 뜻의 ‘마쓰나미를 지역의 중심적인 가치이자 상징으로 삼고 있으며, 전통의 다양함이 마을의 모습에서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다카야마 시내에 흐르는 미야가와[宮川]강 동쪽에는 전통건축물 거리가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도시대의 집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산마치지역으로서 (이치노마치, 니노마치, 산노마치)성곽도시인 다카야마의 모습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다.
- 술양조장과 격자집들이 이어진 곳으로 이 지구는 국가로부터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지정되었다.
- 다카야마는 도시전체가 전통집과 거리로 채워진 것은 아니며, 현대적인 거리에 옛길의 흔적을 살리기 위해 안내사인과 이정표를 설치하였다.
- 현대적인 생활과 기반시설을 영위하면서도 도시 전체가 옛길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온 지역의 모습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녹아들어 지역적자원과 활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 5) 시라카와고

### (1) 시라카와고의 전통가옥

- 시라카와고의 전통가옥인 갓쇼즈쿠리(合掌造)는 두손을 합장한 모습의 가옥형태를 띠고 있다. 역새폴로 엮은 집 내부는 3, 4층으로 나누어져 양쪽에 이용되었으며, 갓쇼즈쿠리 가옥은 에도시대말에서 메이지시대에 걸쳐 조성되었다.
- 1976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중요전통건축물보존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1995년유네스코 세계유산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다.
- 갓쇼즈쿠리 가옥의 지붕보수비는 국비(90%), 현(10%), 마을(25%)의 비율로 공동부담하고 있으며, 보존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서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 크기 및 색채 등을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라카와고 전경(여름, 겨울)



갓쇼즈쿠리 내부 모습



시라카와고 마을



시라카와고 안내사인, 맨홀, 마을골목길

## 2. 이탈리아 경관디자인

### 1) 이탈리아 경관 특성

남부 이탈리아는 고대 그리스 이래의 오랜 역사를 지니며, 다양한 민족이 교차하여 왔기 때문에 실로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지니고 있다. 개방적인 기후풍토가 옥외공간을 발달하게 하였고, 더욱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밀도 높게 교류하는 전통을 가꾸어 왔다. 석조 건물이 많은 것도 특징적이며, 그것들이 매력 있는 토속적인 거리경관과 취락을 형성해 온 것이다. 남부 이탈리아는 거리경관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다.



소렌토 해안도시 경관



아말피아 해안도시 포지타노의  
흰색건물

남부 이탈리아에서도 근년 들어 오랜 도시나 취락의 수복·재생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고 있다. 어려운 도시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나폴리에서도 최근 20년간의 논란 끝에 겨우 젤트로 스토리코 재생을 위한 행동이 개시되었다.

## 2) 역사지구(젤트로 스토리코)의 경관정책

이탈리아의 앞선 지역에서 젤트로 스토리코의 보존·재생은 이미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매력 있는 도시공간이 앞으로 점점 더 되살아날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역사적 환경의 보호활동은 그 바깥쪽을 향하여 확대되고 있다.

베로나에서는 완만하게 사행하는 아디제강을 따른 수변공간과 강 너머에 펼쳐지는 녹색이 풍성한 구릉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강가에 있는 옛 세관의 낡은 건물을 활용하여 카누 클럽이 만들어진다든지, 물가의 산책로가 정비되고 있다.



첸트로 스토리코라는 의미는 보통 성벽의 안쪽에 산업혁명 전에 만들어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호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경향이 있어, 19세기 후반으로부터 20세기 전반의 건물도 보존의 대상이 되고 있다.

### 3) 이탈리아 경관현황

#### (1) 경관현황

‘경관’이라는 말을 이탈리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70년대 후반이다.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도시 밖에 펼쳐진 지역을 향하고, 자연·전원, 그리고 그 가운데 점재하는 역사적 유산에 이목이 집중하게 되면서, 경관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985년, 경승지나 해안부의 마구잡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칭 ‘갈랏소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제정되어, 풍경계획의 수립이 각 주에 의무사항으로 요구되게 되었다. 1990년 전후에는 많은 주에서 실제로 풍경계획이 만들어지고 승인되었다. 이들의 내용은 당연히 각각의 도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갈색의 지붕이 물결을 이루는 예술도시 피렌체는 가지런한 건물들 사이에서 3개의 건물만이 솟아있다. 피렌체는 봉건제도 아래에서 영지를 받았던 권력자들이 권력의 상징으로 지었던 높은 탑들은 일정한 높이로 절단되었고, 높은 건물은 정치권력의 상징인 베키오 궁전, 종교 권력의 상징인 두오모 성당, 그리고 14세기에 지어진 지오토의 종탑만이 남아있게 되어 역사지구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로마 구도심 역사지구경관-건물높이가 일정하게 조성



피렌체 역사지구 경관-두오모 성당  
돛형건물과 종탑, 메디치궁전만 부각

이탈리아의 역사지구(첸트로 스토리코)에서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개보수시에는 유네스코의 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특히 옥외광고물이나, 색채 등의 규제가 엄격하다. 도시경관을 위해 전체적으로 역사지구에 현대식 건축물은 지을 수가 없다.

역사지구(첸트로 스토리코)에서 오래된 건축물의 증개축시 가림막은 완성된 이미지를 전사하여 설치하고, 그 위에 기업의 대형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볼로냐 산 페트로니오대성당  
개보수 가림막 광고



볼로냐 도심지 건물 부착 옥외광고물



언덕에서 내려다본 테베레강변 경관



로마시내의 소나무는 우산형태로 여름에 지중해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조성

## (2) 시설물

### ① 도시 문화의 직접적 표현방식 - 간판

로마에도 간판은 있되, 간판이 있다는 느낌이 없다. 거리 상점마다 간판은 있지만 간판이 없는것 처럼 보인다. 이탈리아에도 간판과 관련된 법이 광고법 이외에도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이 존재하지만 간판은 기본적으로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 허가를 얻어 설치해야 한다.

이때 주변 건물과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빨간색 및 원색 간판 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며, 2층 이상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판의 크기에 따라 간판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 간판에 대해서 엄격하게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렇듯 시 차원에서 간판 정비에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가 드물어 로마의 간판은 로마에 사는 '로마시민'이라는 자긍심에서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상점의 간판은 도시경관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문자형으로 최소화하고, 색채를 중·저채도로 하여 적용하고 있다.



건물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된 간판      건물과 조화를 이룬 타이어판매점 간판

로마의 은행 간판은 도시와 지역 건물의 형태, 건물의 색채에 따라 크기와 서체는 일정 하지만 색채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 공공은 공공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일반 상점은 상점대로 자신의 영역에서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한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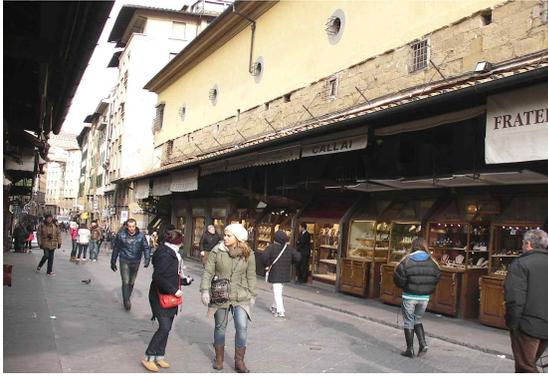


고유색을 적용하지 않은 로고

지역에 따라 로고색을 달리하여 설치한 간판

### (3) 건축물

중세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도시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역사적 거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정책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에는 보존이 건축적 차원으로 건축물 단위에 그쳤으나, 그것이 인간의 환경을 유지하는 도시정책으로 전환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의 경제발전기의 일이다.



1345년에 건설된 피렌체 베키오 다리



로마 콜로세움 황제의 거리금세공 상점

이 시대는 이탈리아 건국 이후 최대의 환경파괴 시기이자 최대의 환경보전단체인 '이탈리아 노스트라(Italia Nostra)'가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까지 역사적 가구(街區)의 보존은 주로 문화적 관점에서 추진됐거나 제3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광산업적인 차원에서 전개돼 일부 도시는 관광객의 거리화해 버리고, 시민 부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베니스이다. 이와는 달리 역사적 가구의 보존 목적을 문화재·관광재 보존 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까지 포함하는 도시의 재생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볼로냐시이다.



관광객 거리화와 야간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베니스



도시의 재생의 성공사례도시 볼로냐

이탈리아 볼로냐는 보행자들은 마차 건물 복도를 걷고 있는 듯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포르티코(Portico)' 건축양식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심을 둘러싸고 40여 km 가까이 조성된 포르티코는 햇빛을 가려 주고 겨울철 눈비를 막아준다. 포르티코는 공개공지의 역할을 지닌 공적 공간으로서 볼로냐의 도시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볼로냐 도심에 있는 모든 건물의 1층마다 처마가 보도까지 뻗어 나가 전 시가지를 회랑처럼 구석구석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아치형의 이 독특한 회랑은 '포르티코(주랑·柱廊)'라고 불린다.



건물에 설치된 회랑(포르티코)



포르티코 내부

도심 전 구역에 조성된 포르티코는 오래된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도심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사유지의 일부를 개조해서라도 포르티코를 만드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볼로냐의 포르티코는 건물마다 그것이 생겨난 시대의 유행을 반영해 각각 모양이 다르다. 꾸밈없이 소박한 중세풍, 섬세한 고딕풍,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 중후한 바로크풍, 단순한 모양으로 지어진 아케이드까지, 포르티코는 역사 속에 담긴 도시의 발자취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동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볼로냐의 건축물은 스크라비토 양식으로 단장한 건물이 일부 볼 수 있는데, 이 양식의 건축물들은 평면적 공간을 입체적 공간으로 착시하도록 유도하는 특수하게 건축된 미학적 건물이다.



볼로냐의 오래된 회랑구조



스크라비토 건축양식

#### (4) 가로공간

##### ① 가로

가로의 중심에 배수로를 깊이 얇게 설치하여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가로 바닥패턴과의 일체된 디자인을 유도하고 있다.

역사도시임을 부각하며, 이를 이용하여 가로에서의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도록 하며, 가로에 면한 건물입면의 재질 및 색상에 통일감을 주어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창문 난간은 벽면 녹화를 이루고 있으며,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곳곳에 특색있는 디자인의 안내지도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 ② 공원, 광장

공원은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하고,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조성하였다.



고대 로마시대에 광장은 정치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공간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광장은 시민들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공공장소로서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광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소규모 상점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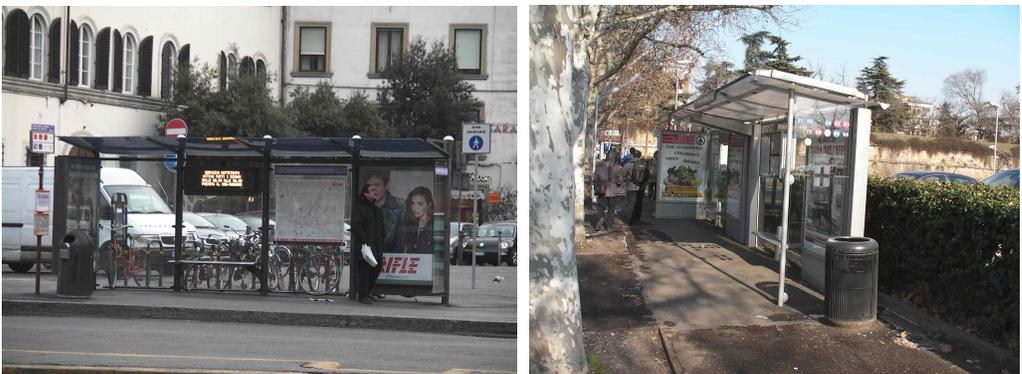
베로나 에르메 광장- 주위를 에르메 광장과 연결된 골목건물로 둘러싸고 있음

## (5) 공공시설물

### ① 버스승강장

도시경관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스테인리스스틸과 투명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경관과 가로시설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능주의적이며, 심플한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② 휴지통

휴지통을 벤치와 같은 장소에 설치하고 있다.

가로변에 설치된 휴지통은 르네상스양식의 형태를 나타내며 가로등과 같은 소재자체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장식적인 문양을 적용한 휴지통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컬러별로 구분하여 설치

(6) 색채

① 색과 표면을 위한 기준

도시건축적, 구성적 컨셉은 지역 특징적인 재료들이 사용되어진다. 지역 특징적 색깔은 광장에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오래된 도시의 색을 조성하게 된다. 기준은 역사적 모범에서 도출된 것이다. 색의 컨셉에는 수 많은 출처가 있다. 그것에는 도시정경 뿐 아니라 폐허속에 발견된 건물 조각들도 포함된다.



고대로마도시 오스티아 유적지 건축물 색채



고대도시 오르비에또 지역의 건물의 색채

도시의 건축물은 주황색 지붕또는 회색색상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으며, 건물 입면의 색채는 GY, YR 계열로서 암갈색, 노랑색, 주황색 등을 나타내고, 중 저채도의 도시이미지를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

도시마다 약간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베니스는 짙은 자주빛 색채가 도시의 상징으로 되어있다.

건물 전면 상가의 파사드 부분은 강조색을 사용하여 차별화하고 있으며, 바로크양식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프레스코 문양이 도시의 다양한 색상을 보여준다.



로마시내 건축물의 YR, R계열



암갈색의 베니스 건축물



16세기 프레스코화를 적용한 오르비토  
베로나시 건축물



석재를 이용한 도시 건축물 색채

(한국디자인진흥원/공공디자인 연구 프로젝트)

## I. 계획의 개요

### 1.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목적

#### 1) 계획의 필요성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디자인 전략 필요
- 통합된 월미관광특구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가로시설물의 개선 필요
-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필요
- 관광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필요
- 국제적 관광특구로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2) 계획의 목적

- 월미관광특구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특화전략 수립
- 역사자원이 있는 문화지구와 주변지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제시

### 2. 계획의 방법 및 범위

#### 1) 계획의 방법

##### ■ 경관기준작성 계획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제고

- 특화전략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연구 수행시 정책방향 확인을 통한 연구 진행
- 경관법규, 조례, 관련법규, 상위계획 및 관련사례를 검토하여 그 범위에서 새로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월미관광특구 특화전략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현가능성 제고

## ■ 공공디자인 기준 내용의 실현 가능성 제고

- 지역주민 및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용의 실현가능성 검토하에 계획 추진

## 2)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2 ~ 2013년  
- 계획수립의 기준연도는 2012년, 목표 연도는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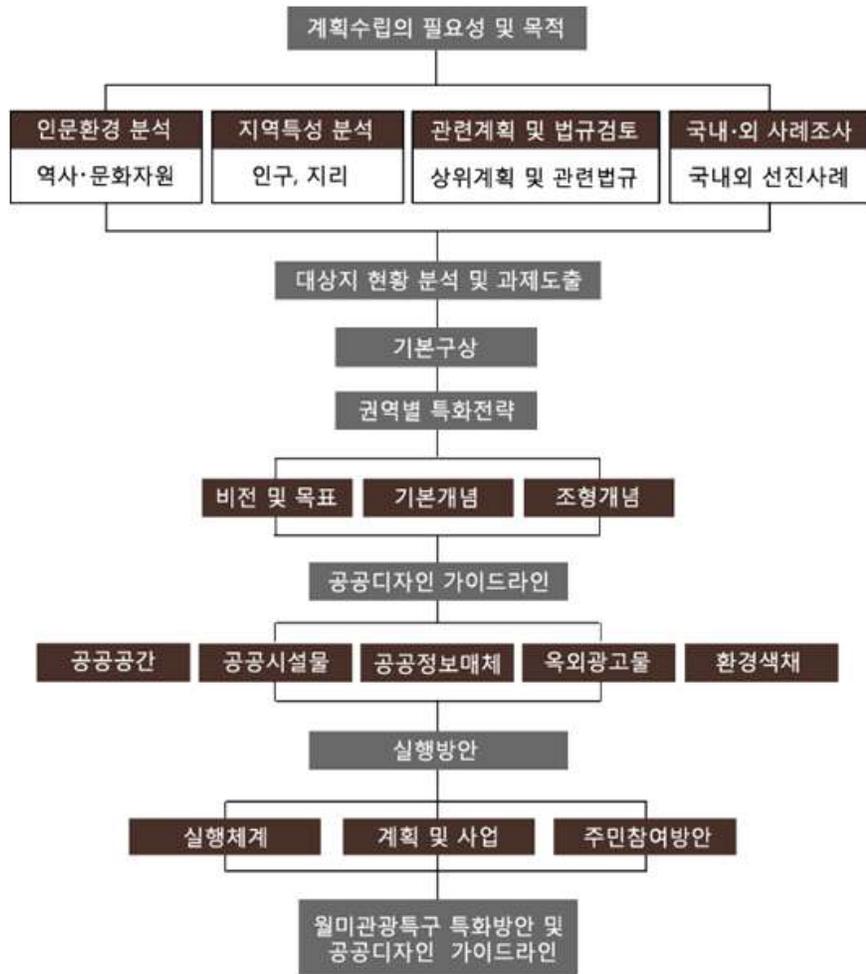
### (2) 공간적 범위

- 개항장(문화지구, 차이나타운), 월미도, 연안부두(인천항)
- 인천시 중구 전지역

### (3) 내용적 범위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월미관광특구에 맞는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 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 근대역사자원이 있는 문화지구, 개항장권역, 월미도 권역, 인천항과 어시장
-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세스 및 민·관 역할 제시
- 분야별, 시설별, 관리주체별 공공디자인 시설설계 기준 마련
- 권역의 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방향 및 특화전략 마련

### 3. 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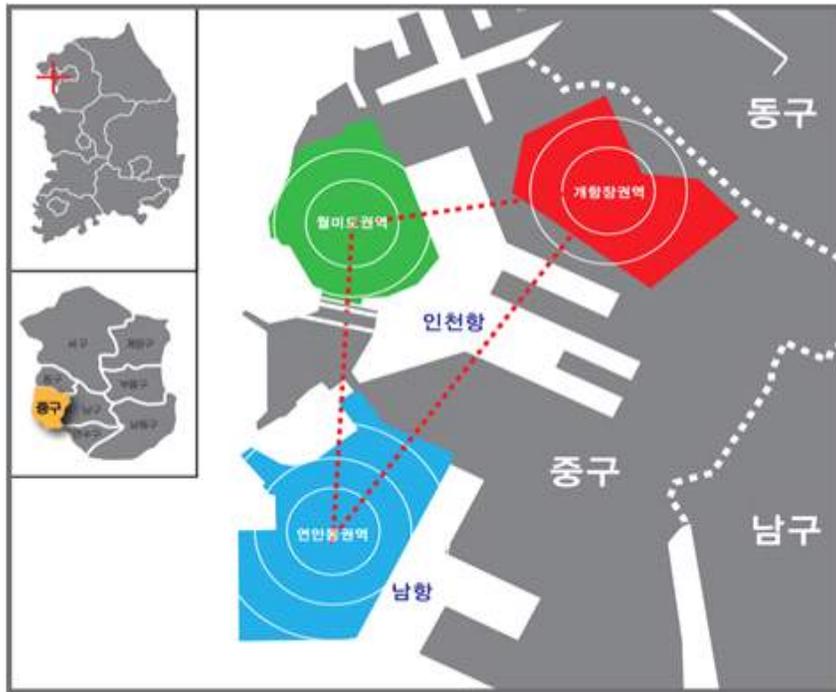
(표 1-1) 연구수행체계

## 4 대상지 현황조사

### 1) 대상지 현황

#### (1) 인문환경 특성

- 중구의 행정구역은 115,24km<sup>2</sup>로, 기존 육지부 12,6%와 영종·용유 도서부 87,4%로 구성됨
- 행정조직은 10개 행정동 52개 법정동으로 인구는 2009년 기준 92,441명이며, 2001년 75,510명에 비하여 인구는 다소 증가했으나 최근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일시적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남
- 예산규모는 2009년도 229,242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1,7%로서, 다른 구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한 편임
- 중구는 1883년 개항장으로 인천 최초의 계획적 도시이며, 개항기 근대 역사문화자산이 밀집되어 있음. 따라서 항만, 관광,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율미도, 연안부두, 용종, 용유, 무의도 등 해양관광, 레포츠 도시로의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역사 깊은 인천항은 국가지정 무역항으로 우리나라 2위 항만이며, 공항관련 첨단산업단지와 전시 및 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신구가 공존하는 도시임
- 근대문화유산과 유물이 밀집해 있는 중구청 주변 일대의 지역특성을 살린 역사문화공간정비를 위해 중구청과 인천시가 도로정비 및 시설 확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음.



## 2) 지리적 분석

- 중구의 도시계획면적은 274.1km로서 경사도가 5도 미만인 지역이 95%를 나타내고 있어 평탄지가 많은 편임
- 해운항만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세계의 전진기지로 부상
- 해로가 남북을 연결하고 있으며 중봉로와 축항로가 동서의 주요 도로축
-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철도가 입지하고 있어 물류와 유통의 역할 수행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주변 신도시개발로 인한 위기와 기회의 중요한 위치임
- '개항장 문화지구' 및 '월미관광특구'의 일부 지역으로, 개화 문물이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된 지역임. 신문물의 전시장이자 각국의 외국인이 내항을 통해 입국하여 서울로 올라가던 관문으로 현재까지도 다국적 특징을 나타내는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이 많이 남아있음

- 역사문화와 관련된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개항장 문화지구 및 월미관광특구의 개항장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형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3. 공공디자인 조사 및 분석

#### 1) 분석대상

- 개항장권역, 월미도 권역, 연안부두 권역에 대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
- 공공 디자인영역 및 대상 분류표에 의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지역에서 나타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을 분류하여 문제점 파악

#### 2) 분석요소

- 분석요소는 공공디자인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구성
- 사용자 중심 측면 - 통합적 요소, 유니버설적 요소, 범죄예방 요소, 편리·쾌적성
- 정체성 측면 - 이미지 요소, 역사·문화적 정체성, 색채구성
- 기능적 측면 - 배리어프리, 인지성
- 지속가능성 측면 - 지속가능성(친환경 소재), 관리의 용이성
- 경제적 측면 - 내구성, 효율성

#### 3) 공공디자인 분석

- 공공디자인의 유형분석은 대상물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항목별 5단계로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권역별로 합산된 평가점수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항목별로 비교 평가하여 개선방안 도출

## 4.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1) 관련계획검토

#### (1)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2006)

계획기간

- 기준년도: 2006년
- 목표년도: 2020년

세부목표

- 21세기 동북아의 관문도시에 적합한 국제도시(International City)
- 국제도시로써 역사·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도시(Attractive Culture City)
-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선진도시(Sustainable-Advanced City)
- 정주의식을 고양하는 쾌적한 생활도시(Comfortable Life City)

기본방향

- 해양 육상 하늘 ⇨ 세계와 인천의 조화
- 실질적인 관문도시로써의 국제도시 인천의 시가지경관 형성
- 과거현재미래⇨역사와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매력적인 시가지 경관형성
- 자연 인간 인공 ⇨환경과 개발의 조화
- 인천의 자연환경과 인공구조물이 인간의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연출되는시가지경관형성

기본전략

- 21세기 동북아 관문도시에 적합한 국제도시이미지 창출
-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아내 역사와 침출
- 국제도시로서 역사·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도시 경관형성
- 시대적변화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선진도시 경관창출
- 정주의식을 고양하는 쾌적한 생활경관형성

#### (2)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2010)

계획기간

- 기준년도: 2010년
- 목표년도: 2025년

세부목표 및 기본방향

- 세계적인 명품도시 - 상징적인 경관창출
- 친환경 녹색도시 - 도시·자연·인간이 어우러지는 경관 연출
- 역사문화도시 - 역사·문화가 숨쉬는 경관조성
- 매력적인 살고 싶은 도시 - 인천만의 정체성을 담은 경관 연출계획 전략
- 도시의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도시경관 창출 및 인천의 이미지 차별화와 상징성 부여
- 환경 친화적 녹색성장의 이념에 부합하는 도시환경 조성
- 역사·문화적으로 매력적인 인천의 도시경관 창출
- 시민생활에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가지 경관 형성

### (3)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 계획기간

- 기준년도 : 2010년
- 목표년도 : 2025년
- 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2008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가이드라인」을 현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고, 별도로 운영하였던 '건설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가이드라인', '교량하부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외국어 간판 표기 길라잡이'를 본 가이드라인과 통합하여 작성하였음
  - 본 가이드라인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천 광역시 가이드라인 중 각 부문별 주요사항을 집약하여 효과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함
- 구성
  - 본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 「가로환경디자인」 4개 분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함

### (4) 인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기준년도 : 2009년
- 배경
  - 본 가이드라인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항목별로 세부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부분별로 정량적·정성적 기술과 예시를 제시하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적용여부 확인 및 현황진단을 실행

- 구성

-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세부/권역별 가이드라인 중 부분별로 구성
- 적용 및 관리지침에서는 기성시가지 지역/신개발지역/도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

- 목표

- 본 가이드라인은 실행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기업체 및 외부전문가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인천의 공공디자인 원칙과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기본방향(공공공간)

- 장소성 - 인천다움과 장소경을 지닌 공공공간 만들기
- 안전성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공공간 만들기
- 심미성 - 도시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공공공간 만들기
- 기능성 - 본연의 기본기능이 실현되는 공공공간 만들기
- 환경성 - 자연요소를 활용한 친환경 공공공간 만들기
- 통합성 - 주변공간과 상호연계된 공공공간 만들기
- 지속성 - 지속적 관리와 유지가 가능한 공공공간 만들기

- 기본방향(공공시설물)

- 상징성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만들기
- 기능성 -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공공시설물 만들기
- 안전성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견고한 공공시설물 만들기
- 심미성 - 보편적인 미적기준을 만족하는 공공시설물 만들기
- 편의성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공공시설물 만들기
- 통일성 - 원칙을 가진 일관된 공공시설물 만들기

- 기본방향(공공시각매체)

- 첫째, 비움, 통합을 통한 도시경관과의 조화
- 둘째, 가독성 중심의 안내체계 확보
- 셋째, 지속가능한 공공시각매체 구축
- 넷째, 지역 정체성 반영

(5)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2006, 인천광역시 중구)

- 내용 : 중국식 전통공원 조성사업 - 전통공원 조성 확장(2009년)  
중국문화 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 한중문화관 건립 및 운영(2005년)  
중국풍 테마거리 조성사업 -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2006년)  
안내표지판 설치(2009년)  
축제 및 이벤트 사업 - 자장면 축제(매년 10월)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매년 10월)  
월미관광특구 사업 - 이민사 박물관 건립(2004~2011)  
월미은하레일(2006~2011)  
동인천역 역세권 개발(2004~2013)  
신포~월미도 상징보행축 조성(2005~2011)  
월미공원조성(2000~2010)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2004~2013)
- 특구지정 필요성 : 먹거리 위주의 관광지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국풍 전통공원 조성 등의 특화사업으로 관광기반시설 확충
- 기대효과 : 국내 유일의 차이나타운을 대규모 관광지로 육성하여 지역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효과,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지역으로 성장효과

(6) 월미관광특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2010~2014)

- 내용 : '개항, 항구도시 콘텐츠 기반 창조관광도시 실현'으로, 도시(개항도시, 항구도시)고유 콘텐츠를 핵심가치로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하고,공간을 창조하여 도시매력 진흥,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을 지향
- 권역별 주제 : 월미도권 - '이야기, 역사, 예술'  
연안부두권 - '항구 도시문화와 워터프론트'  
개항장권 - '근대역사와 다문화 창작예술'로 주제 설정
- 기본방향 : Contents - 개항도시, 항구도시 콘텐츠 확장 및 창조적 예술콘텐츠 진흥  
Containers - 지역의 특색있는 컨테이너 창조 및 유희공간의

창조적문화예술활동수용- 점,선,면적 유휴공간의 재발견 및  
창조적 활용(물양장, 주차장, 골목, 담, 방공호, 담)

Contents Network - 콘텐츠간 연결성 및 중심성 강화

-

역사공간,수변공간,생활문화공간,상업공간의 보행축 정비 및 회유성 향상

#### (7)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2011)

##### ●내용

- 자원의 다각적 육성을 위한 세부검토와 우선적 장소브랜딩
- 개항장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권장업종 및 시설의 선정과 지원방안
- 차별화된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전략

##### ●유형별 경관현황분석

###### 가로시설물

- 벤치 등의 편의시설물 부족, 공급시설물은 많이 설치됨
- 전반적으로 그래픽 요소의 과다사용 및 원색의 지나친 사용으로 디자인 통일성 부재
- 지역 정체성 및 경관저해 시설물 과다
- 무계획적인 개별적 시설물개발로 통합디자인 체계 미흡
- 시설물 관리 소홀로 훼손 우려

###### 공공시각매체 경관

- 통일감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 주차장 관련 표지판을 통해 문화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필요
- 각 시설의 개별 상징사인물 외에 문화지구를 상징하는 사인물 또는 조형물 필요

###### 옥외광고물 경관

- 신포로와 개항로 주변에 다양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 필요
-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통일화할 필요

##### ●가이드라인 원칙

- 고도지구로 인해 층수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의

민심을 고려하여 권고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함

- 근대적 경관을 위한 지침적 성격일 뿐이며, 향후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참고자료를 활용함
- 지역별 차별화 건축물, 시설물 및 표지판은 주위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역사문화중심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적용도 달라야 함
- 상업중심지역 신포로 27번길 정비지역 - 가로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색상은 건축물 파사드와 유사한 갈색 또는 검은색계통 차이나타운 일대 - 지역 특유의 적색을 건축물에 사용하여 적색계열의 옥외광고물 또는 시설물이 어울림
- 사업별 차별화
  - 문화지구내의 공간적 권역내에는 이미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수 많은 도로포장 사업,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들이 동일한 주체가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시설물이 다양한 형태를 띄게됨
  - 향후 진행될 세계음식문화특화거리, 다문화특화거리 등은 기존 개항장 문화지구의 근대적 경관과 다른 양상을 보임
  - 따라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야만 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 (8)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09)

- 내용
  - 인천 개항장의 신축 건축물의 경관 훼손 및 노후건축물의 방치로 인한 혼란한 도시가로 정비
  - 근대역사문화 발원지로서 근대문화유산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
    - 관리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주요 가로 활용방안
  - 개항 테마 박물관 거리 조성
  - 개항 및 근대문화와 관련된 각종 박물관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공화춘에서 구 일본 58은행에 이르는 '개항 테마 박물관 거리'로 특화하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대표적 랜드마크 거리 조성
  - 테마박물관 주변 건축물은 권역별 경관계획을 반영하여 외관이 근대

건축물의 의장요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기 조성된 석재 보차도 외 가로등, 우체통, 인력거 등 근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시설을 역사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해 도입함

● 축제의 거리

- 붉은 창고 등의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한 인천아트플랫폼은 축제와 이벤트가 상시 연출되는 축제의 거리로 조성
- 방문객을 위한 벤치, 쉼터 등의 편의 휴게시설공간과 조형물의 확충을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공간을 거리화가의 작업장으로 조성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넘치는 거리로 조성함
- 인천아트플랫폼 네 옥외 오픈스페이스를 야간에 일정시간 동안 ‘문화예술 프리마켓’ 으로 개방하여 이벤트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개항장내 기념품점, 카페 등 지역상인에게는 수익성있는 판매기회와 문화예술가에게는 자유공연 기회 제공

● 권역별 경관계획

개항장 권역

- 일본식 근대건축물 인접지역은 개항당시의 점포주거형태를 반영한 2층규모의 주상복합시설로 조성
- 신축 또는 개선되는 건축물은 당시 점포형 주거주택의 건축스타일인 경사지붕, 돌출기둥, 발코니 등을 도입 반영
- 현재 가로의 불량건축물, 공작물 등을 개선하고, 개항당시의 가로등을 도입하여 근대분위기 연출

● 차이나타운 권역

- 현재 가로의 불량 건축물, 공작물 등을 개선하고, 중국풍 근대건축물의 기본요소를 적용하여 차이나타운 권역의 차별화된 경관 형성
- 일반 건축물의 신축, 개보수는 중국풍의 근대건축물의 기본요소인 경사지붕, 발코니, 여단이창, 캐노피 등을 도입한 2층 규모의 주상복합 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 한중원 등 중국풍 정원형태의 소규모 휴게쉼터를 차이나타운 내 다수 조성하여 중국풍 지역경관 이미지 연출 강화

● 가로별 경관계획

- 단차없는 보차도와 상점, 가로등, 휴게벤치 등 보행자 중심의 가로시설물을

도입하고, 불법 적치물 무단점유 등 가로 이용시 불편사항과 경관저해 요소에 대한 환경개선 작업을 우선 추진함

- 무선인터넷 박스와 키오스크 등 첨단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방문객의 주요동선 가로와 가로별 쉼터에 설치하여 정보취득의 편의를 제고
- 시설물 자체의 디자인과 외관에 근대적 경관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근대적 가로이미지에 미래첨단기술이 공존하는 가로경관 구축
- 벽화, 조형물, 상징깃발, 도로의 컬러 및 재료 등의 차별화를 통해 가로별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길거리 공연과 같은 예술행위가 가능한 소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사이사이에 도입하여 경관상 다양한 변화를 주어 가로의 매력 제고
- 계절별로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가로별 정체성 및 쾌적성을 제고하고,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근대경관이미지 형성 및 인접 경관과의 조화 도모

#### • 시사점 및 분석

- 상위계획에서 강조한 비움·통합적 요소, 정체성, 이용자중심, 친환경성 등을 고려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특화전략 및 가이드라인 구축
- 근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시설을 역사문화거리 조성과의 연계 필요
- 실행지침으로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추진

## 2) 관련 법규검토

- 현재 디자인 관련 법규로는 디자인 산업을 보호 진흥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과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있음

### (1) 디자인 보호법

목적

-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

### (2) 경관법

## 제정 목적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견고 싶은 거리 조성,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등의 경관사업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는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경관협정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이 활성화 되도록 함

## 분석 및 시사점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경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도시경관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특정 경관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디자인을 다루고 있음
- 지역의 공공디자인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법이나 기반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시·구청별 공공디자인 조례와 시행규칙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브랜드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2. 사례지역 검토

### 1) 나가사키

- 나가사키는 1571년 포르투갈을 기수로 하여 영국·네덜란드·미국·러시아·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들이 밀어닥친 곳임 즉, 일본에서 최초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개항도시며, 1542년 다네가시마섬에 표류하던 포르투갈 배가 정박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
-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의 거류지였던 '데지마(Dejima)'는 1636년 에도 막부가 포르 투갈인의 천주교 포교를 막고자 약 1만 5000m<sup>2</sup> 규모의 부채모양 인공섬을 축조하였으며, 그곳에 포르투갈인을 수용
- 근대건축물 등의 보존을 위해서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어야 하며, 예전부터 지역민에게 일정한 역할을 한 건물은 정부 지원을 받기 쉬움. 특히, 건축물과 관련한 스토리가 있어서 매력적인 곳인 곳으로 부각할 수 있는 곳이 유리함.
- 나가사키항 주변 해안지역에 위치한 '데지마 워프'는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 가로등은 동종 형태를 띠며, 블라드는 배 밧줄을 묶어놓는 말뚝을 형상화 하여 설치함
-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해안공원에는 해안 녹지와 우드테크를 설치하여 쾌적성이 높음



- 시설물의 색채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청회색, 녹회색, 갈색을 적용하여 항구도시 이미지를 나타냄
- 가로등 및 시설물과 운행중인 전차에서 일본 최초의 개항도시 이미지를 나타냄

## 2) 고베

- 1868년 개항과 외국인 거류지의 설치를 계기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하여 이국정취가 넘치는 도시 고베의 이미지 원천이 됨
- 고베는 변화한 시가지, 삼림이 풍부한 롯코산을 함께 갖고 있는 도시로서 항구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래 전부터 번영해옴
- 고베시는 이야기가 있는 워터프론트'를 만들고 즐기고 체험하고 배울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시민·관광객들에게 워터프론트의 매력을 제공



- 고베항이 개항하면서 항구 부근에 외국인이 모여살기 시작 하였으며, 고베의 발전과 더불어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는 이곳 키타노초에 거주를 허가하여 지금의 외국인 거리 “이진칸카이”가 형성되었음
- ‘메리켄 파크’는 고베의 워터프론트 지역으로서, 포트타워나 해양박물관 등이 있으며 항구를 돌아가는 배들도 발착.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하버랜드 지구가 위치
- 1950년대 초반부터 ‘항만과 관광의 연계’ 원칙을 세운 고베시는 1961년 포트타워 건립을 시작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시킴
- 항구도시 이미지와 연계되도록 배 정박시설을 적용하여 가로시설물을 설치 하고, 고베의 문양을 화분대에 적용하여 고풍스러운 분위기 연출



- 근대건축물의 전면을 개보수하여 지하철 출입구로 재 활용하여 근대건축과 현대를 조화시킴



### 3) 브리스톨

#### (1) 도시 개요

- 영국 남부의 작은 해안도시 브리스톨(Bristol)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도시환경으로 악명높은 지역임.
- 브리스톨은 예술(연극, 현대미술, 사진, 오디오-비주얼 산업, 박물관 등)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파악해 경제 불황으로 인한 도시의 위기를 예술지구 형성을 통해 타개함.

- 시의회, 기업인, 예술인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중심이 된 도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예술 도시의 컨셉을 활용해 경제 활성화를 이룸.
- 1980년대 후반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새로운 서비스 부문 직종들이 심한 타격을 받아 이에 투자와 일거리 경쟁에서 뒤지게 되는 위기에 처함.
- 기업인들로 구성된 전국적 지방기업 조직인 TBI (The Bristol Initiative)조직구정으로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번영한 활기찬 도시'를 도시 아이덴티티로 설정함
- 효과적인 도시 홍보 / 마케팅을 위한 조직화 실행  
브리스톨 문화계획 주식회사 : 시의회 + 기업 + 예술 분야 대표의 합작회사
- 브리스톨의 통합디자인경영은 디자이너 Tim Fendly를 주축으로 '잘 읽히는 도시'를 디자인 목표로 하여 5개의 전문가팀 구성
- 길찾기(way-finding)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사인, 안내도, 키오스크, 웹사이트 및 공공미술까지 확장됨
- 도시디자인, 기획, 교통계획, 제품디자인, 공공미술위원, 정보디자인, 시각소통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전공팀'을 구성하여 이를 주축으로 정체성과 'legibility'에 관한 탐구를 한 통합디자인 사례
- 도시 도크의 재개발과 연계된 새로운 '예술/오락지구 (arts and entertainment zone)와 같은 중요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술이 활성화된 도시이미지 구축함.
- 브리스톨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 서체, 아이콘들이 새로 디자인되었으며, 색상팔레트가 선정됨으로서 통일성을 갖추
- 메인색상으로 바닷가 항구도시인 브리스톨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파란색을 선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아이콘과 심벌 채택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Harbourside  
Harbourside

British Indu  
BRITISH IND

Bristol  
Old City  
Broadmead Shopping



## IV. 계획의 기본방향

### 1. 계획의 방향

#### 1) 기본구상

**자연·환경적 측면** - 우수한 자연경관의 입지조건을 반영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의한 키워드 도출  
**자연과 인간의 조화 - 지속가능한 디자인**

**역사·장소적 가치 측면** - 우리나라 최초 개항지로서 지역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미지에 의한 키워드 도출  
**문화적 다양성 - 정체성 디자인**

**유니버설적 측면** - 불필요한 시설물 개선 및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는 키워드 도출  
**소통과 참여 - 사람중심 디자인**

#### 2) 기본방향

#####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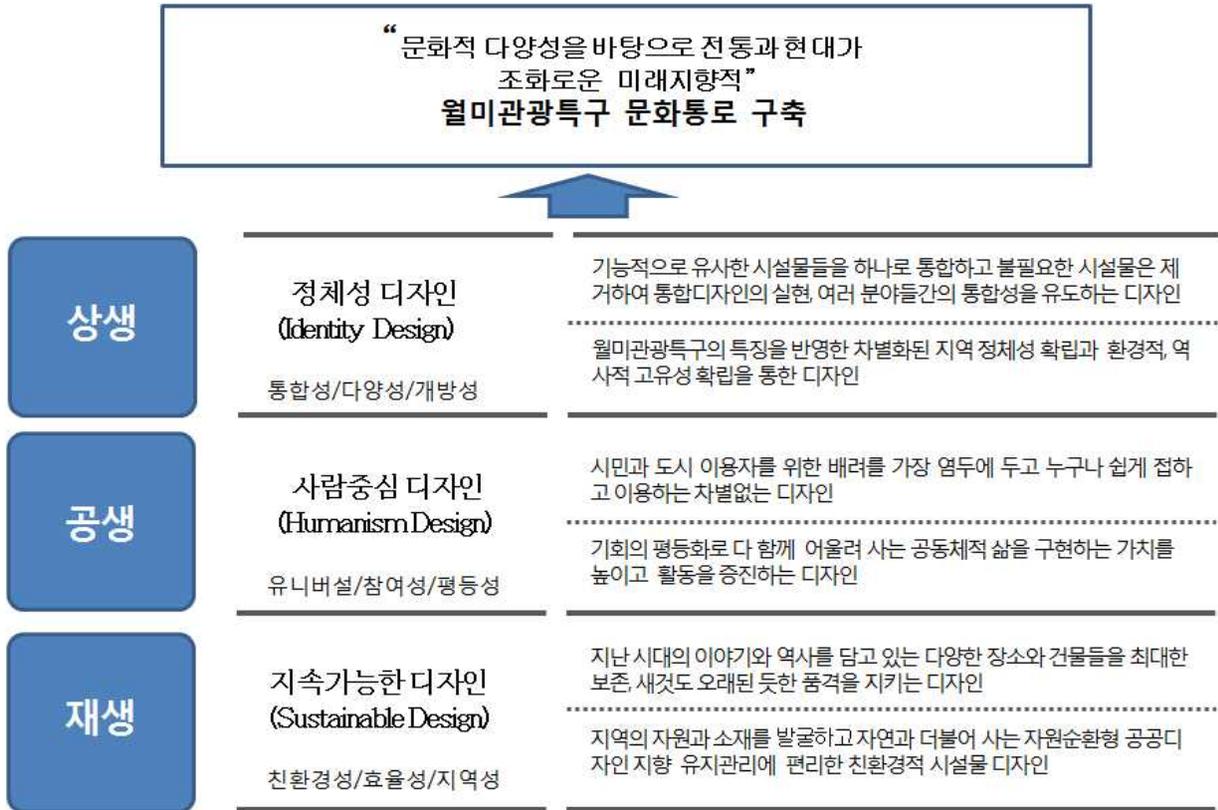
- 개항장 권역, 월미도 권역, 연안부두권역을 포함하는 통합브랜드 구축
- 문화적 가치를 내포한 창조도시 지향
- 활용성 극대화

##### (2) 비전 및 목표

-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미래지향적  
“**월미관광특구 문화통로**” 구축
- 근대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 확보

#### 3) 기본개념

- 월미관광특구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문화통로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3개 기본개념을 통해서 구체화 함
- 정체성디자인, 사람중심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 4) 세부 추진방향

## 월미관광특구의 미래비전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미래지향적”  
월미관광특구 문화통로 구축

### 목 표

역사 문화도시의 정체성 확보

##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의 흐름

### 계획기조

공생

상생

재생

### 기본개념

정체성디자인

사람중심디자인

지속가능한디자인

### 4대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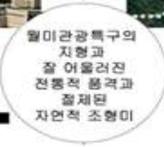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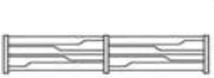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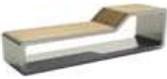
전략1:역사성회복  
전략3:접근성 개선

전략2: 시설물의 통합성  
전략4: 상징적이미지구축

### 권역별 구상

개항장권역 - 근대역사문화를느낄수 있는 **역사 통로** 구축  
연안부두권역 - 개방감을느낄수 있는 **해양 통로** 구축  
월미도권역 - 인천의문화예술을느낄수 있는 **교류 통로** 구축

## 5)조형개념

자연에 순응하여 잘 어울려진 <b>월미관광특구의 해변의 선</b>		자연에 순응하여 잘 어울려진 <b>월미관광특구의 물그림자의 패턴</b>		
				
				
				
버스쉼터	안내표지판	난간(보차도 구분)	가로등	
				
벤치	휴지통	맨홀뚜껑		
				
<b>모티브</b> (Mo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미관광특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에 있어 디자인 모티브를 "통격, 가치, 활동"을 상징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조형개념과 지역특화 이미지로 자연에 순응하여 잘 어울려진 월미관광특구의 해안선을 활용하였다.</li> </ul>			
<b>형태</b> (Sh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미관광특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은유적 조형언어 사용</li> <li>- 단순성과 결합성을 바탕으로 <b>표준화</b>된 공공시설물 디자인</li> <li>-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b>안전성</b>과 <b>인체공학</b>을 고려한 디자인</li> <li>-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의 <b>통합화</b></li> </ul>			
<b>색채</b> (Col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그레이계열</b>의 색채를 활용해 주변 가로와 조화</li> <li>- 월미관광특구의 <b>정체성</b>이 반영된 색채 개발</li> <li>- 인공적인 도색의 지양/자연적인 소재가 주는 <b>편안함</b> 지향</li> <li>- 주위환경과의 <b>조화</b>를 고려하여 자명도, 저채도의 색 사용</li> </ul>			
<b>재료</b>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으로 <b>지속 가능</b>한 디자인을 실현</li> <li>- 사용자의 <b>안전</b>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적용</li> <li>- <b>자연소재</b>의 부분적 사용</li> </ul>			
<b>시공 및 배치</b> (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의 동선을 배려하는 배치로 주변공간의 극대화 및 시민의 <b>쾌적함</b>에 방해되는 요소 배제</li> <li>- 유사기능 시설물들의 <b>통합 배치</b></li> <li>- 영커의 노출지양 및 지면의 <b>마감처리</b> 개선</li> </ul>			

## 6) 권역별 특화전략

### (1) 개항장 권역 (차이나타운-문화의 거리)

머무르는 공간조성(보행환경 및 시설물 개선)으로 방문객 유입기대

미래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정신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적 도시</li> <li>• 삶의 가치 향상</li> <li>• 문화 다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성</li> <li>• 문화적 정체성</li> <li>• 근대건축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취성</li> <li>• 다양성</li> <li>• 조화성</li> </ul>



#### [ 공공디자인 구성계획 ]

- 기존 자동차도로를 고원식 횡단보도를 도입한 노약자 및 보행자도로로 정비
- 특화구간정비 - 주 상징공간인 진입부는 거점지역으로 빈번한 보행 및 체류가 예상되는 공간
- 통일감 있는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
- 중구의 역사·문화·예술적 자원을 체험형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이 직접 참여
- 경관체계계 - 형태 [월미관광특구의 통합적 디자인 기본형으로 공간형성]
  - 색채 [문화적, 자연환경적 색채/자연소재의 소재색]
  - 질감 [투수성 천연소재의 포장, 목재, 석재 도입]



공공공간의 재활용  
지역정체성, 친 환경성, 참여성

개항지의 문화와 역사가 스며있는  
“문화통로” 디자인 구축

## (2) 월미도 권역 (문화의 거리)

머무르는 공간조성(보행환경 및 시설물 개선)으로 방문객 유입기대

미래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정신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이벤트</li> <li>• 휴식놀이공간</li> <li>• 문화 다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성</li> <li>• 문화적 정체성</li> <li>• 인천상륙작전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성</li> <li>• 다양성</li> <li>• 역사성</li> </ul>



[ 공공디자인 구성계획 ]

- 친수공간을 자연의 체험학습 산책로로 정비
- 통일감 있는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
- 특화구간정비 - 자연산책로의 주 거점공간인 진입부 / 보행교통의 결절점 보행 및 체류예상
- 경관체계계획 - 형태 [ 월미관광특구의 통합적 디자인 기본형으로 공간형성 ]
  - 색채 [ 무채색의 시설/자연소재의 소재색 ]
  - 질감 [ 투수성 천연소재의 포장,목재, 석재 도입 ]



공공공간의 재활용  
지역정체성, 친환경성, 참여성

월미도의 문화와 특성이 담겨있는  
“문화동로” 디자인 구축

### (3) 연안부두 권역 (인천항 - 어시장)

머무르는 공간조성(보행환경 및 시설물 개선)으로 방문객 유입기대

미래 요소	역사문화적 요소	정신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취성</li> <li>• 휴식공간</li> <li>• 미래지향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성</li> <li>• 국제성</li> <li>• 역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력성</li> <li>• 다양성</li> <li>• 조화성</li> </ul>



### [ 공공디자인 구성계획 ]

- 연안부두 진입광장은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정비
- 통일감 있는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
- 특화구간정비 - 해안광장의 주 거점공간인 진입부 / 보행교통의 결정점 보행 및 체류예상
- 경관체계계획 - 형태 [ 율미관광특구의 통합적 디자인 기본형으로 공간형성 ]
  - 색채 [ 무채색의 시설/자연의 소재색 ]
  - 질감 [ 투수성 천연소재의 포장,목재, 석재 도입 ]

사 업 명	2012 공주 고도육성 포럼		
책 임 자	서 정 석	사 업 기 간	2012. 3.1-2013.2.28
회 의 명	포럼 - 제2분야		
회 의 일 시	2012. 10. 30	회 의 장 소	공주대학교 교양관 306호
회 의 참 석 자	서정석, 이충훈, 임준홍, 황종현		
회 의 내 용			
<p>- 공주고도경관설계기준연구 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전문가 회의개최</p> <p>공주고도경관설계기준연구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p> <p>- 공주 고도의 우수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주변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시각적, 심미적 경관 특성을 극대화하고, 역사적 흐름과 장소적 차별화를 통하여 다양한 공간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고도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임</p> <p>- 경관 기준작성은 공주 고도 사업지역내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건축물 및 향후 건립될 건축물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경관색채, 조망경관 등에 대한 도시경관의 관리와 관련계획 추진을 위해 부분별 기본방향 및 설계지침을 규정하고 있음</p> <p>경관가이드라인 체계는</p> <p>- 고도공주의 경관이미지와 경관권역을 기초로 역사적 경관자원 보존, 훼손된 경관자원정비, 새로운 경관자원 창출을 기본전략으로 경관 가이드라인 체계 도출</p> <p>건축물 가이드라인 - •개성 있는 •친환경적인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 •보행자 중심공간 •안전한 공간 •정돈된 공간 •지속가능한 공간</p>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정량적방향제시(최소화, 축소화) •정서적방향제시 (질서, 가독성, 조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 •기능을 우선하는 •통합하는 •안전한 •사용자를 배려하는

공공구조물 - •공주고도의 품격 저해 •불필요한 장식 배제 •구조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색채 - •정체성 확립 •독창성 확보 •통합성 유도 •국제성 지향

#### 기본조형 형태 도출

- 공주고도의 가치를 살리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형태적 디자인 발굴
- 간결성, 순응성, 절제성 등 공주고도 전통문화유산이 가지는 형태적 특성 반영
- 간결한 이미지를 통해 주변 문화유산을 강조하는 디자인 구현

#### 공주고도 색채 기본방향

수려한 고도공주의 역사유적 경관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색채 계획을 수립하고 내츄럴(Natural)계열 색채를 적용하여 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색채 이미지를 지향한다.

잘된 도시디자인둘러보기  
도서출판 미학사/194쪽  
2012. 12. 30

